



매거진 프로젝트 제1호 이세현 작 '사람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려한다'



매거진 프로젝트 제5호 주대희 작 '행복이라는 것'

지역이슈 공감 '한장짜리 미술잡지' 신선

지난 9월 6일 'DAM'(Daein Art Magazine)이라는 제목을 단 A2 크기 한 장짜리 '잡지'가 배달돼 왔다. 선한 눈망울의 사슴이 눈에 확 들어오는 사진을 한 면 가득 채웠고 다른 한 면엔 '대인예술(문화) 시장'에 대한, 그들에 의한 잡지/페이퍼'라는 큼직한 제목과 앞으로 실릴 내용이 빠르게 적혀 있었다.

■ 광주비엔날레 대인 매거진 프로젝트

지역 미술계와 대인시장에 미친 영향 등 담아
광주일보 통해 매주 2만부 일반 시민에 배포



매거진 프로젝트 제7호 윤남웅 작 '해풍'

'잡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무색한, 달랑 한 장짜리 팸플릿 형태의 전단지엔 '대인예술(문화) 시장'에 대한, 그들에 의한 잡지/페이퍼'라는 큼직한 제목과 앞으로 실릴 내용이 빠르게 적혀 있었다. '잡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무색한, 달랑 한 장짜리 팸플릿 형태의 전단지엔 '대인예술(문화) 시장'에 대한, 그들에 의한 잡지/페이퍼'라는 큼직한 제목과 앞으로 실릴 내용이 빠르게 적혀 있었다.

지난달 26일 종간될때 까지 매주 2만부씩 7차례에 걸쳐 배달된 잡지는 가벼운 '짜리시' 형식에 도 볼거, 목적인 지역 이슈를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제 9회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대인 출신 윤남웅씨가 비엔날레와 지역민, 지역 예술계의 고민을 '잡지'라는 형태를 빌려 풀어내고자 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지역 미술계의 눈길을 끌었다.

잡지는 비엔날레가 지역 미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역 문화예술이 도시 발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엿볼 수 있다. '대인예술시장 7명의 아티스트들에게 물어본 다섯개의 질문'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두번째 잡지에는 '비엔날레가 대인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등 민감한 내용을 담았다. 20년 가까이 비엔날레를 치르면서 과연 지역 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누구나 궁금할만한 '이슈'를 꺼내들었다.

작가들도 솔직한 의견을 토론했다. 조승기 미테우그로 대표는 "시장 안 예술공간 사이나 시장 안 사람들간 커뮤니티 개념이 발달했고 작

가 교류가 활발해진 것 같다"고 했지만 작가 이승일씨는 "비엔날레가 대인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보선 독립큐레이터는 "크게 멋진 작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교류가 많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탁현씨는 "초기엔 잠깐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했고 윤남웅씨는 "대인시장이 비엔날레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윤씨는 "광주예술에 대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잡지의 다음 호에는 '대인시장 6명의 아티스트들'이라는 타이틀로 이세현·설 박·박성환·김형진·이조

적으로 진행하고 시립미술관과 다른 문화재단 사람들이 젊은 국내 작가들이 많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씨는 몇 백억을 투입, 천계천에 설치했던 클래스 올덴버그의 '스프링'을 예로 들며 "그 비용을 지역 작가들에게 사용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 "그렇다고 그 작가들이 올덴버그냐?"는 의견 모두 가지는 방향성이라고 했다.

이어 배달된 '대인시장 상인분들에게 물어본 질문 다섯 가지'라는 타이틀도 눈길을 끌었다. '작가들이 들어오고 나서 시장에 변화가 있나요?',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작가들이나 문화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등의 질문에 상인들의 투박한 사투리를 섞은 답변이 신선했다.

홍·수산물·생선을 파는 백씨는 "실은 장사하고 상관없어. 작가들이 더 들어와버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안와. 예술시장이라 해버리지 자기들 뒤 사려는 안은"이라고 했다.

정육점 정씨도 "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장사하고는 상관없어. 차라리 그 예술 공간을 한 줄에 딱 밀집시켜서 만들면 더 낫지"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주대희씨의 '행복이라는 것'이라는 작품을 커버로 쓴 전단지에는 조승기·정선휘·김현준씨의 비엔날레에 대한 토크 내용도 가감없이 실렸다.

문화계에서는 비엔날레 참여작가로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 지역 예술계와의 교감을 시도했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소다 켄이치 日 홋카이도 문화재단 이사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향하는 광주 홋카이도 문화정책 방향 제시"

인구 550만명의 일본 홋카이도는 일본 지자체 중 처음으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한 지역이다. 또 1994년에는 도청이 100억엔(약 1400억원)의 기금을 출연, 홋카이도문화재단을 출범시킨 후 다양한 문화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5박 6일간 광주연극협회와 광주문화재단은 삿포로에서 극단 알·아리의 '그 남자의 사정(事情)' 공연을 펼치는 등 홋카이도 문화재단과 교류 사업을 진행했다.

"두 단체가 교류를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저희 지역에서 광주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도시와 교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주목했던 건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였어요. 다음 세대의 키워드가 문화라고 확신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와 단순한 친선이 아닌, 문화를 기축으로 한 교류를 지속한다면 홋카이도의 문화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삿포로 현에서 만난 이소다 켄이치(67) 홋카이도 문화재단 이사장은 "당초 2012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된다고 들었는데 자꾸 개관이 늦어져 아쉽다"고 말했다.

홋카이도 도청 문화과장·부지사로서 재직하며 조례와 재단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 재단을 이끌고 있는 이소다 이사장은 "처음 자리를 맡을 때 보수를 받지 않는 대신 정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자원을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예산이 많을 때 문화에 돈을 투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문화의 힘'을 믿고 과감히 문화에 투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홋카이도도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초기에 기금 마련이 힘들었어요. 특히 초창기에 마련하지 않으면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2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문화에 대한 투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홋카이도 문화재단은 순수하게 문화예술인과 지역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한 전체 예산은 1억 7000만엔(23억 7000만원)이다. 이중에서 순수 사업비는 1억 1000만엔(15억 4000만원), 사업예산은 2년에 걸쳐 조성한 기금 100억엔의 이자도 충당하고 있다.

"이자 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재단도 기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공익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펀드 라이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후원도 끌어들이려고 하구요."

이소다 이사장은 "홋카이도 문화재단 설립 20주년을 맞는 2014년에 광주와 함께 문화를 차세대 기축으로 삼는 방향성 등에 대한 심포지움 등을 개최했으면한다"고 밝히고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 세계의 문화중심이 되는 데 홋카이도도 힘을 보태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삿포로=김미은기자 mekim@

故 김근태 의원 아픔 담은 '남영동 1985'

19일 광주극장서 특별 무료시사회... 감독 정지영·배우 이경영 참석

고(故) 김근태 의원의 자전적 수기를 영화화한 '남영동 1985' 특별 시사회가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1985년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22일간 고문을 당했던 김근태 의원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린 '남영동'은 지난 10월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화제가 됐던 작품이다.

1985년, 민주화 운동을 하던 김태태는 가족들과 목욕탕에 다녀오던 길에 경찰에 체포된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김태태는 모진 고문을 견뎌내며 거짓 진술서를 거부하지만 '장의사'라 불리는 고문 기술자 이두환이 개입되면서 잔혹한 22일이 시작된다.

지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부러진 화살'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박원삼·이경영·이천희 등이 출연했다.

광주인권영화제가 주관하는 이번 시사회 티켓은 광주극장 카페(<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특별 시사회 관련 글에 댓글로 신청하면 된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1인 2석까지 가능하다.

이날 시사회에는 정지영 감독과 배우 이경영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광주인권영화제 062-529-7576, 광주극장 062-225-885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휴플러스 건너편)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광역시 금수동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